



미국, 플라스틱 필름 수요 3% 증가 예상
2006년 시장규모 2백10억달러 전망

미국의 플라스틱 필름시장은 매년 3% 성장해 2006년에는 약 1백40억 파운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고 합성수지 시장은 약 90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합성수지, 기타 첨가물 그리고 생산비용을 합한 총 플라스틱 필름의 시장 규모는 약 2백10억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플라스틱 필름시장은 기술의 발달로 적용분야가 다양해지고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적인 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Ethylene Vinyl Alcohol 필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ellophane의 사용은 다른 수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Polypropylene 포장지는 가격이 저렴하며 품질이 뛰어나 사용처가 다양해 전체 필름 수요의 73%정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플라스틱 필름 산업은 다양한 기능적인 요구에 부응해야함과 동시에 얇게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공정의 간소화를 통해 생산가격의 절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종류별 수요비율을 살펴보면 Low Density Polyethylene이 전체 수요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High Density Polyethylene의 수요는 16%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폴리프로필렌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U 화학물질 인허가규정 도입 업계반발 연말 폐지 수립률 공급 과잉 및 제고 과다 초래

EU에서 화학물질의 유통, 제조, 인허가, 검사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도입할 기미를 보이자 독일 업계는 격렬한 반발을 하고 있다. 독일 산업경영자협회(BDI), 화학협회(VCI), 전자협회(ZVEI) 등의 3개 주요 산업협회에서는 독일 정부가 EU의 새 화학물질 정책으로 심한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 협회에서 에이디엘(ADL) 조사기관에 의뢰해 새 화학법 도입의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학관련 규정을 신규 도입할 경우 독일에서만 15만명 내지 2백35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의 신고, 허가, 검사 등을 규제함으로써 비용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로 개발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도 지킬 수 없다고 업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로 도입하고자 하는 화학관련 규정은 일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라고 하는 신고, 허가, 검사 시스템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딜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 수입상 등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연간 1톤 이상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이 신고되어야 하며, 백톤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 보건복지부 당국이 이

물질의 위험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 화학물질은 물론이고 1981년 이후에 시장에 출하된 기존의 화학물질도 REACH시스템에 따라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점차적으로 2012년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다. 또한 CMR물질, POP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규 화학규정은 관련 당국이 화학물질 위험성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물질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물질 위험성 여부 뿐 아니라, 모든 부산물의 위험성 여부,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검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체 생산과정이 분석되어야 하고 생산업체, 관련 업체, 딜러, 수입상 등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허가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 물질출하 연체와 비용의 상승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화학물질 관련법으로 인한 타격은 화학업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여타의 산업분야에 까지도 타격이 확산될 것으로 관련협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EU 화학산업 관련기업은 3만6천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백70만명의 종업원이 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독일 주요 산업협회에서는 REACH라는 새 허가절차로 독일 경제가 막강한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하고 있다.



日 정부, 환경 비즈니스 지원 방침
일본 경제산업성 최근 기업 환경 비즈니스

진흥 대책등을 기획·입안하는 전문위원회인 '산업과 환경 소위원회'를 산업구조심의회 환경 부회에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첫 모임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이산화탄소(CO₂)의 배출을 줄이는 기업의 환경 비즈니스를 지원책을 논의했다.

오는 2003년 1월을 목표로 환경산업 비즈니스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 위원의 구성은 환경경영분야 전문가인 산업계와 학계의 지식층 28명으로 구성하며, 산업계에서 토요타자동차, 캐논, NEC, 동경가스, NKK, 데이진(帝人), 가시마(鹿島), 덴쓰(電通) 등 10개사의 간부가 참가할 예정이다.

주요 검토과제로는 환경경영 촉진 현황, 환경 비즈니스 진흥대책, 지역에 따른 환경산업의 진흥, 기업·시민·행정의 연대로 환경개선 활동, "국가의 환경경영·환경 비즈니스 지원 등 5개 분야를 다룰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독일 내년까지 우레탄 원료공장 증설 추진
폴리우레탄 시장 10년간 5~6%성장

독일 바스프(BASF)사는 2003년까지 벨기에 안트워프(Antwerp)MDI(diphenylmethane

diisocyanate) 공장을 현재 연간 23만 톤에서 32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설은 아시아지역의 폴리우레탄 시장이 향후 10년간 5~6%의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공장이 완공되는 2005년까지 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인 MDI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아시아 물류상 또한 아트워프공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스프는 아트워프 이외에도 독일 Geismar, 미국 Louisiana, 한국 여수에 MDI공장이 있으며, 2005년까지 중국 상해시 Caojing 지역에 대규모 폴리우레탄 원료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아시아 고지시장, 공급 차질 빚어
서부항만 폐쇄 여파 남아

미국 서부항만의 부두작업이 지난 10월 9일부터 재개되었지만, 9월말부터 시작되었던 11일간의 항만폐쇄의 여파가 아시아 고지시장에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기간동안 적체되어있던 물량을 소화하는데에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미국 동부나 유럽, 아시아의 고지바이어로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게다가 고지는 선박회사들에게 있어서 저가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물품에 비해 선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런 불리한 조건속에서 많은 고지선적건이 선박회사에 의해 취소되는 사례가 생겨



나고 있다. 서부항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고해도 만약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현실화 될
경우, 대부분의 선박들이 전쟁물자공급에 사용
될 것이므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않을 전
망이다.

10년전의 걸프전쟁당시에 미국으로부터의 고
지선적이 사실상 중단되었던 바가 있다. 전반적
인 고지공급부족사태에 의해 아시아 고지가격
이 약간 상승했다.

그리고 지금 제지공장들의 재고가 넉넉치않은
수준이고, 곧 연말이 되면 재고량을 늘릴 것으
로 보이기때문에 고지가격은 좀더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매년 4/4분기는 광고 카타로그나 유인물, 포
장지의 소비가 증가하므로 그만큼 고지수집률
도 동반 상승하는 시기이다.

미국산 OCC의 가격은 US\$5/MT 상승된
US\$135~145/MT CIF에, 유럽산 OCC도
US\$5/MT 올라간 US\$95~115/MT CIF에 거래
중이며 미국산 ONP의 경우는 공급이 현저히 타
이트해지면서 US\$5/MT 인상되어
US\$140~150/MT CIF에, 유럽산 ONP는
US\$110~120/MT로 변동이 없이 거래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폐지가격 변동 없어
일본 경우 공급 부족 겪어**

지난 10월 중순 이후의 아시아 폐지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

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폐지의 가격은 지난 2주간 변하지 않
아 OCC가 US\$135~145/MT CIF, ONP가
US\$130~150/MT CIF에 거래중이다.

유럽산 폐지도 마찬가지로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해, OCC US\$95
~115/MT CIF, ONP는 US\$110~120/MT
CIF에 거래됐다.

일본산의 경우 수출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아직 11월달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사
에 따르면 OCC의 공식 수출가는 US\$108/MT
CIF이며 아시아바이어들은 US\$130~140/MT
CIF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국내바이어들도 OCC 물량확보에
혈안이 되어있어 추가금을 내고 있으며 이 역시
나머지 아시아바이어들의 구매가를 올리는 원인
이 됐다.

일본산 ONP의 공급은 조만간 더욱 타이트
해지고 장차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왜냐하
면 Daishowa Paper Manufacturing이 해외
공장의 지분을 일부 매각한 이후 환경친화적인
목적으로 더 많은 ONP를 구매할 예정이기 때
문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서부항만사태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폐지공급에 차질이 생겼
을 뿐만 아니라 선사들이 이번 사태로 인한 손
실을 매꾸기위해 그 부담을 바이어들에게 전가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폐지의 경우 US\$10
~12/MT의 추가운임을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